

백제 무왕 때 지어져… 흥연, 백련, 수련 등 연꽃 천만 송이

충청도 핫플레이스

충남 부여 공남지

‘백제의 땅’ 충남 부여는 백제의 옛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부소산성 낙화암(落花巖)은 나당연합군에 쫓겨 치마를 뒤집어쓰고 깊은 백마강으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강물에 흔적도 없이 흘러 사라졌고 백마강은 예나 지금이나 유유히 흐를 뿐이다. 이렇듯 사람은 죽고 나지만, 과거 역사의 흔적은 여전히 고스란히 아직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사람은 수명이 자연과 역사유물보다 훨씬 짧지만, 역시 시간이 갈수록 삼라만상이 변화하고 사라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로서 ‘사비(泗水)’라 불렸으며, 538년(성왕 16년)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했다. 그 후 660년(의자왕 2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국이 멸망하면서 신라에 예속됐고, 경덕대왕(742~765년) 당시 부여군으로 개칭됐다. 고려 시대에는 1018년(현종 9년) 공주와 병합해 감무를 다스리다가 조선 시대에는(태종 13년) 독립해 부여현이 됐다. 이어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홍산현·임천군 전역과 석성현·공주군 일부를 편입, 1개 읍·15개 면으로 부여군이 형성됐다.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77번지 남쪽에 있는 백제의 별궁 연못이 남궁지다. 남궁지는 백제 무왕 때 만들어진 것으로, ‘궁궐의 남쪽에 연못을 팠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근거로 공남지로 부르고 있다. 남궁지는 면적이 21만 881㎡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제법 크다. 공남지 연못은 천만 송이 핀다. 50여 종의 흥연, 백련, 가시연꽃, 수련 등 연꽃이 즐비하다.

연꽃이 피는 시기인 2022년 7월 14일부터 27일까지 제20회 공남지에서 ‘연꽃 축제’를 연다. 삼국사기에는 20여 리나 된 긴 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들었고, 주위에 버드나무를 심었다. 연못 가운데에는 ‘방장선산’을 상징하는 섬을 만들었다. 그러나 수로와 물가·연못 속의 섬이 어떤 모양으로 꾸며져 있었는지는 알 수 없고, 못의 중앙부에 석축과 버드나무가 남아 있어 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변에서 백제 토기와 기와 등이 출토됐다.

연못의 규모 또한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당시에 뱃놀이했다는 기록으로 봐서 그 크기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고대 중국인들은 동해 한가운데에 일종의 이상향인 신선이 사는 3개의 섬으로 삼신산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원의 연못에 삼신산을 꾸미고 불로장수를 희망했다고 한다. 공남지는 이것을 본떠 만든 것으로



1



2



3



4

① 충남 부여군 백마강과 낙화암 전경. 사진=부여군 ② 충남 부여군 공남지 포룡정 전경. 사진=부여군 ③ 충남 부여군 공남지 포룡정. 사진=부여군 ④ 충남 부여 공남지 연꽃. 사진=부여군

부여 공남지, “목조다리서 시공 초월 백제인 만나려나”
백제 무왕 때 만들어져… 삼국사기, ‘궁궐의 남쪽에 연못을 팠다’ 기록
백제, 화려하나 화려하지 않은 ‘연꽃 향연’ 만끽
면적 21만 881㎡에 연꽃 천만 송이 등 50여종 연꽃 즐비

신선 정원이라고도 불렸다.

연못 동쪽에 당시의 별궁으로 보이는 궁궐터가 남아 있고 현재 연못 주변에는 별궁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우물과 추춧돌이 남아 있다. 연못 안에는 정자(포룡정)와 목조다리를 만들어 놓았다.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에 달빛이 비치는 공남지는 그윽한 달빛에 은은하게 공남지 윤곽과 정자와 목조다리 등 어우러져 더욱 아름답다. 옛 백제 선현들이 걸었음직한 목조다리를 건너는 것만으로도 시공을 초월해 그들을 꼭 다리 중간에

서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들은 이 다리를 건너면서 현재대 사람들과 잠시 여유로움을 갖고 공남지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모습은 역시 같았으리라. 공남지에는 연꽃이 즐비하다. 연꽃이 필 때면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연꽃봉우리가 올라온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꽃은 활짝 피어 올라 고고하고 꽃꽂한 채 아침이슬을 머금는다. 연꽃은 불심(佛心)이 없더라도 모두가 좋아한다. 연꽃은 연못의 물이 깨끗할수록 맑지는 않더라도 항상 ‘연꽃의 자태’는 좀처럼 더럽혀진 모습을 보여주

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연꽃은 화려하나 화려하지 않은 백제인들을 보는 듯하다. 123년간 국력 신장과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쳐 백제와 백제 사람들은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았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았던 고대문화를 꽃피웠던 역사문화를 닮았다.

부여는 그 자체자 역사 유적지다. 그래서 땅도 함부로 파지 못한다. 시내 건물도 아파트를 제외하고 고층건물이 거의 없을 정도다. 부여는 백제 마지막 수도 사비성의 화려했던 역사와 패망의 역

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박영희 해설사(부여군 소속)는 “공남지는 634년 무왕 때 삼국사기에 궁궐 남쪽에 큰 연못을 팠다는 기록은 있다. 부소산 앞에 궁궐이 있었으니 남쪽 공남지에 연못을 팠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연못이다. 20여 리에서 물을 끌어다가 만들었고 사방에 버드나무를 심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국유사에는 배를 띄워서 왕과 왕비들이 놀았다. 무왕(서동)이 태어난 곳(포룡정)도 공남지로 탄생설화도 전하 내려온다. 우리나라 ‘항가’ 최초의

발상지(서동요)이기도 하다. 설화에 무왕이 선화공주와 배를 띄우고 놀았다는 기록도 있다”고 말했다.

박 해설사는 “공남지는 ‘백제의 정원’으로 백제의 정원 기술이 신라에 전해져서 경주 ‘안압지’를 만드는 데 영향을 끼쳤다”면서 “공남지는 밤낮으로 부여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인산인해 이루며 가장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부여 여행의 별미는 역시 연잎에 쌀과 밤 등을 넣어 갓 지은 연잎 향이 가득한 ‘연꽃 밥’이 제격이다. 김정은 기자

Dr. JCOS
Let's be beautiful everyday!

온라인 피부 진단 받고
진짜 피부 관리를 시작하세요.



코로나와 마스크로 손상된 피부. 늦기 전에 관리하셔야 합니다.